

생명평화 탁발순례길에서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여라' 떠난 도법 스님



“불교 한 번 잘 해보자, 중 노릇 제대로 해보자”는 마음으로 그동안 여러 대중결사 운동을 펼쳐왔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한국불교는 모순과 세속화 현상이 더욱 심화되고 있어요. 천년 전 수행자들처럼 온몸으로 불을 던지는 것 말고는 달리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한가위를 지나 곡식을 익히는 따뜻한 가을 햇살이 내리쬐는 10월 1일, 남원 실상사에서 도법 스님을 만났다. 지난 7개월간의 생명평화탁발순례를 잠시 접고 휴식을 취하고 있는 스님은 최근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여라>아름다운 인연을 펴내고, 경제적·정신적 혼란을 겪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한국 불교와 승단이 어떤 희망을 제시할 수 있는지를 묻고 있다.

“진리의 실천이란 언제나 지금 바로 볼 수 있고 실현되고 증명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출가는 우리를 미혹케 하는 그 어떤 허상도 타파하려는 구체적인 실천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자기중심의 이기성에 의한 육체적 관습적 허상을 타파하기 위한 출가 정신의 실천이 생활화 될 때 비로소 참된 출가라 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회향한 ‘평화와 화해를 위한 1천일기도’와 끝이 시작한 생명평화탁발순례

역시 스님에게는 ‘불교 제대로 한 번 해보자’는 구체적인 실천이라 할 수 있다. 수행 스님과 함께 전국을 걸으며 대중들을 만나 생명과 평화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이번 순례는 ‘진 존재를 바쳐 오늘 우리를 둘러싼 문제의 실상을 파악해보자’는 뜻으로 시작한 일이다. ‘일생을 탁발수행으로 일관한 사람이 바로 석가모니 부처님이고, 출가수행자들의 삶 역시 늘 길 위에서 펼쳐졌기 때문’이라는 것이 스님의 설명이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여라>에 대해 스님은 “한국불교와 승단에 던지는 절절한 신앙고백이자 숨 막히는 답답함을 어찌하지 못해 토해낸 하소연”이라고 말한다. 10여년에 걸친 집필 끝에 선보인 이 책에서 스님은 부처님의 탄생에서 입멸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좇으며 한국 불교의 현실과 교차시켜 되짚어 본다.

“불교를 바르게 알고 바람직하게 수행하는 길은 부처님을 온전히 아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문제점을 안고 있는지를 살펴본다. 또한 무조건 출가수행과 깨달음만을 본받으려 했던 기존의 믿음과 접근 방법을 철저히 반성하고, 싹타르타의 발심을 자기 것으로 받아들이는 작업이 출가의 출발이자 수행의 전부라고 지적한다. ‘깨달음’에 대한 오해도 비판을 비껴갈 수 없다. “정정 지혜 자비로 충만하다면 굳이 깨달음을 부여에 매달려야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 스님의 주장이다.



“부처를...” 책 표지

과장되지 않은 어휘와 스님 특유의 직설적인 문체를 따라 읽어가다 보면 모순과 혼란, 관념으로 집착된 한국불교의 문제점을 속 시원히 들여다볼 수 있다.

이제 스님은 10월 4일 밀양을 출발해 거제, 마산, 창원, 진해 등을 거쳐 생명평화탁발순례를 다시 시작한다. 15~17일에는 실상사 일대에서 순례에 참가한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는 ‘2004 생명평화대화-참화와 성찰의 길’도 마련되어 있다. ‘희망은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가는 것’이며 “만나고 이야기한 만큼 생명평화의 씨앗이 뿌릴 것”이라는 믿음으로 스님은 그렇게 전국토를 걸어갈 것이다. www.lifepeace.org

실상사=여수형 기자 snooopy@buddhapia.com

“오늘의 불교 부처님 생애에 비춰보니 ...”

직설적 문제로 승단에 던지는 절절한 고백과 비판

다. 스스로 평화의 존재가 되어 우리 모두의 삶을 평화롭게 가꾸기 위해 시작된 두 스님의 탁발 순례는 하루 평균 12km, 3년간 1만2000km를 걸으며 전국 일원에서 진행됐다.

스님은 “마음속에 간직된 생명과 평화에 대한 열정을 이끌어내 생활 속에서 녹여내도록 하는 것이 탁발 순례의 목표”라며 “생명 평화의 논리로 나와 나, 남과, 진보와 보수, 남과 북, 인간과 자연의 갈등을 풀어내자는 것”이라고 말한다.

다. 불교역사의 뿌리인 부처님을 인간·역사·종교적 측면으로 종합하여 온전하게 파악하고 이해하지 않은 채 불교를 제대로 알고 수행도 순탄하게 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각 장에서는 부처님의 탄생과 발심, 출가, 수행, 깨달음, 전법을 공부하는 우리의 입장과 그것이 뜻하는 바를 짚어 보고, ‘반성되어야 할 우리의 문제’를 통해 ‘지금/여기’의 우리는 어떤

“서울 박물관대회 유산 보호 새 전기될 것”

국제박물관협의회 자그 페로 회장



다. 이러한 일을 막기 위해서는 유네스코와 각국 정부 상호간의 긴밀한 협력관계가 절실한 요구입니다.”

10월 2~8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COEX)에서 열리는 ‘2004 세계박물관대회’에 참석하기 위해 방한한 자그 페로(59·Jacques Perot·사진) 국제박물관협의회(ICOM) 회장은 9월 30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 컨벤션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지난 1946년 파리에서 설립된 ICOM은 140개 회원국의 박물관·미술관 전문가 2만여명이 회원으로 가입한 유네스코 비정부 기구(NGO). 3년마다 유럽과 비유

럽 지역에서 번갈아 열리는 ICOM 대회는 ‘문화 올림픽’으로 불린다. “아시아에서는 처음 열리는 이번 서울대회는 ICOM의 역사에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9월 30일 현재 102개국 1천2백65명이 등록한 것이 이를 말해줍니다. 아시아 지역 박물관 전문가들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풍부하게 내놓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페로 회장은 서울 대회의 주제를 ‘박물관과 무형 문화유산’으로 정한 것과 관련, “어느 나라보다 무형 문화유산이 풍부한데다 일찍부터 제도적으로 무형문화재를 보호해 온 한국의 사례에서 많은 것을 배우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자그 회장은 프랑스 국립 문화유산존대학을 졸업하고 육군 박물관장을 거쳐 현재 콩피앵 뉴·블레랑쿠르 국립박물관장으로 일하고 있으며 지난 1998년부터 ICOM회장을 맡고 있다.

노병철 기자

“2006년 10월까지 모든 불사 마무리”

룸비니에 대성석가사 건립하는 법신 스님



“2006년 10월까지 부처님 탄생 성지인 네팔 룸비니에 3층 규모 요사채 2동과 대웅보전 1동을 건립하는 ‘대성석가사’ 불사를 매듭짓을 계획입니다. 지난 1995년 UN 산하 룸비니개발위원회에서 7,748평의 대지를 99년 동안 임차 받은 후 만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추진한 끝에 룸비니 성역화 불사가 그 윤곽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네팔 대성석가사 주지 법신 스님(사진)이 최근 한국불교종단협의회가 주최하는 ‘2004년 한국 문화체험(10월 1~5일)’ 행사 참여차 한국에 들어왔다. 법신 스님은 대성석가사 창건 의의를 “한국 불교의 우수성을 세계 사람들에게 널리 알리고 여러 종교인들 간의 교류를 활성화해 세계 평화에 이바지하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대성석가사 불사는 그 밑바

탕을 닦는 일인 셈이다. 법신 스님은 “올 9월 대성석가사 대웅보전 기단부 1016평과 1층 483평 공사를 모두 마쳤으며 11월 13일 대웅보전 2층 290평 상량법회를 봉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법신 스님은 네팔 현지 사정에 대해 “약 20개국의 종교인들이 들어와 사찰을 건립하는 등 활동을 펼치고 있다”며 “외국인들의 활동이 활발해 지면서 정부가 점차 외국인들의 움직임에 제약을 하고 있지만 네팔 내정이 불안하지는 않다”고 밝혔다. 스님은 10월 2~8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세계박물관대회에 네팔 대표들과 함께 참석, 네팔의 문화를 세계 박물관 관계자들에게 알리는 활동도 펼치고 10월 17일 다시 네팔로 떠난다. 강유신 기자

일주문

김, 한인이주 기념관 기공식 참석
조계종 전 총무원장 월주 스님은 9월 26일 러시아 연해주 우스리스크에서 열린 러시아 한인이주 140주년 기념관 기공식에 참석했다.

전국청소년지도자 축제 개최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장 현성 스님은 10월 8~9일 국립평창청소년수련원에서 ‘제 3회 전국청소년지도자축제’를 개최한다. (02)2667-0874

동국대 서울캠퍼스 법문
조계종 중앙종회 의장 지하 스님은 10월 12일 오후 4시 동국대 서울캠퍼스 정각원에서 ‘불교를 일면 즐겁다’를 주제로 법문한다.

조계종 3기 고시위원회에
동국대 정각원장 법신 스님은 9월 22일 순천 송광사에서 열린 조계종고시위원회에서 1·2기에 이어 제3기 고시위원장으로 재선출됐다.

종교연합 사랑의 바자회
서울 회계사 주지 성광 스님은 10월 9일 오전 10시 송암교회, 수유리 성당과 함께 제4회 종교연합 사랑의 바자회를 개최한다.

서울구치소에 불서 보시
서울 사간동 법원사 주지 보경 스님은 9월 22일 서울구치소 재소자 불사 3백여 명에게 불교서적, 호신불, 예불집 등을 전달했다.

문화재정책 주제 특강
동국대 불교대학원 석사 2학기에 재학중인 윤성식 정부혁신시방면위원회 위원장은 10월 7일 대전 문화재청에서 ‘정부의 문화재정책 혁신’을 주제로 특강한다.

독거노인 등에게 1천만원 성금
(사)맑고 향기롭게 부산모임 박수관 본부장은 9월 24일 독거노인, 장애인 가정, 소년소녀 가장 등에게 총 1천만 원의 성금을 지원했다.

BBS 부산불교방송 ‘라디오법회 - 금강경 강의’

법륜스님의 반야심경 대강좌

2004년 가을, ‘조금씩 삶이 달라지는 깨달음의 강좌 - 법륜스님의 반야심경 대강좌’를 진행합니다. 삶이 곧 수행임을 일깨우고, 지금 이 자리에서 자유에 이를 수 있도록 이끄는 수행의 요체를 쉽고 분명하게 보여 줄 이번 반야심경 대강좌를 통해 많은 이들이 진정한 행복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법륜스님의 직접 강의로 진행되는 부산 해운대정토법당

부산 해운대정토법당 / 10. 5 ~ 11. 4 / 매주 화, 목

오전 11시, 오후 7시 30분 / (051)747-9997

법륜스님의 반야심경 영상법회

법당	요일	일정	시간	연락처
서울정토법당	매주 수	10. 13~12. 15	오전 11시, 오후 7시 30분	02)587-8993
부산동래법당	매주 화	10. 12~12. 14	오전 11시, 오후 7시 30분	051)557-2746
대구정토법당	매주 목	10. 14~12. 16	오전 11시, 오후 7시 30분	053)744-3025
대전정토법당	매주 목	10. 14~12. 16	오전 11시, 오후 7시 30분	042)253-8990
청주정토법당	매주 화	10. 12~12. 14	오전 11시, 오후 7시 30분	043)284-5951
마산정토법당	매주 수	10. 13~12. 15	오전 11시, 오후 7시 30분	055)247-8991
울산정토법당	매주 금	10. 15~12. 17	오전 11시, 오후 7시 30분	052)245-8995
광주정토법당	매주 금	10. 15~12. 17	오전 11시, 오후 7시 30분	062)511-8990
제천정토법회	매주 화	10. 12~12. 14	오후 7시	043)648-0083
정읍정토법회	매주 목	10. 14~12. 16	오후 7시 10분	019-308-2731
제주정토법회	매주 목	10. 14~12. 16	오후 7시	064)724-7885
공주정토법회	매주 화	10. 12~12. 14	오후 7시	041)856-3317
김천정토법회	매주 월	10. 11~12. 13	오후 7시 30분	054)434-4311

모든 수행근본은 코와 입으로 숨을 쉬지 않고 달마번역 진법 호흡태식법에 있습니다

지구촌에 천지 개벽시대가 오고 있다

경신도통비법으로 지구촌지각이 변동되는 개벽시대에 도통근자, 사명자 초능력자 되소서

을 다바쳐 수행, 경신일 자시와 오시에 천안동 천문을 열어 진태양 진법으로 인가하여 지각이 변동되는 시대에 천하중생들에게 기근에 맞는 경신도통으로 육신에 병, 정신에 병, 잠시에 병, 마음에 병을 제도하여 영가해탈법을 득도하여 새로운 윤리, 도덕창생, 윤리관으로 사명자, 도통근자로 승화하라.

경신도통과 무극대도란 무엇인가

1)천안동 2)천이동 3)타심동 4)신죽동 5)속명동 6)누진동
경신이 돌아오는 것은 60일, 60년에 한번씩 우리인생도 60세 등 환갑이 돌아오는 것과 기동수행으로 수마, 병마, 색마를 이긴 자 리인 만큼 모든 종교를 초월 생명이 있고 번식할 수 있는 자리는 천주교, 기독교, 유교, 불교, 천도교, 대종교들이 이 수행으로 오 늘을 제도하고 있는 신출귀몰한 비법으로 많이 배우지 않아도 단 한가지 수마만이기면 득도하는 수행이며, 이 기도는 천안동 경, 천이동경, 타심동경이 없이는 그 누구도 도를 통할 수 없고 해박야 잠 안자는 잠신이 빙의되어 허송세월만하는 것이다. 이 기도는 일경 즉 천안동만 잘하면 전생, 금생, 내생을 넘나들 수 있으며, 내가 과거 사람 몸받은 모든 업장과 조상들이 못다 한 것을 알아 들을 수 있는 기동중의 기동이며 자아완성은 물론 도 통 신비의 기동 경신 수행인 것이고, 사람이나 짐승이나 귀신들 까지도 제도할 수 있는 초능력자 도통근자되는 비법인 것이다.

【풍수지리 최고의 도전지는 비전의 진본 검여보검에 있습니다.】
※ 진본검여보검 (상·중·하) 구입가격 : 3천만원

- 입제 : 양력 2004년 10월 7일 목요일(해시)
- 해제 : 양력 2004년 10월 8일 금요일(해시) 1박 2일 021821-6622 / 821-7767-8 / Fax 021821-7768 0161239-3110 / 010-3292-3110

1호선 노량진역 하차, 2호선 신림역 7번출구, 7호선 신대방역 삼거리역 2번출구

웅조미륵달마 진인 경신도통회 세계 불교 달마중흥본산